

프로야구 LG, '왕조 건설' 꿈꾼다

염경엽 감독,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간절했던 소망 이뤄
"내년도 한국시리즈 진출하면 더 강해진 팀 돼 있을 것
신구조화 잘 돼... 선수들 잘 키워내면 명문구단 될 것"

LG 트윈스의 우승 한을 풀고 스스로도 감증을 해소한 염경엽 감독이 이제 '왕조'를 꿈꾼다.

올해 정규시즌을 1위로 마친 LG는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무대에 올라 KT 위즈를 4승 1패로 제압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LG가 통합 우승을 차지한 것은 1994년 이후 29년 만의 일이었다.

우승의 한을 풀고자 LG가 2022시즌 뒤 '우승 청부사'로 영입한 염 감독도 마지막 꿈으로 남겨졌던 KS 우승을 이뤘다.

LG는 2022시즌 구단 역대 최다승(88승)을 거두며 정규시즌 2위를 차지하고도 KS 진출에 실패한 뒤 류지현 전 감독과 결별을 택했고, 염 감독을 영입했다.

염 감독도 우승이 간절했다. 2013~2016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2019~2020년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 감독을 지냈지만, 시련담으로 KS 정상에 서본 적은 없었다.

LG 지휘봉을 잡았을 당시 "나도 목표는 단 한 가지고, LG 구단, 팬들과 같다. 감독으로 우승하는 것이다. 선수, 단장으로는 우승을 해봤다. 감독의 입장에서 우승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꿈"이라고 강조했다. 염 감독은 마침내 뜻을 이뤘다.

염 감독의 다음 꿈은 왕조를 건설하는 것이다. KS 우승을 차지한 후 염 감독은 "이 우승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LG가 강팀과 명문구단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LG는 이번 시즌 투타에서 약점을 찾아보기 힘든 팀이었다. 팀 타율(0.279), 타점(714개), 팀 OPS(출루율+장타율·0.755)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팀 평균자책점 부문에서도 3.67로 1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신구조화가 돋보였다.

아수 쪽에서는 김현수, 오지환, 홍창기, 박해민 등 주축 선수들이 견재한 가운데 유망주들이 속속 자라났다.

문보경이 주전 3루수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지난해 타율 0.315 9홈런 56타점에 OPS 0.833을 기록했던 문보경은 올해에도 타율 0.301 10홈런 72타점 OPS 0.825로 활약을 이어갔다.

신민재도 서간함을 밀어내고 주전 2루수로 올라섰고, 문성주도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내면서 외야 한 자리를 꿰찼다.

KS 엔트리에 들지는 못했지만 거포 유망주 김범석, 이재원 등도 차후 LG

타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자원으로 꼽힌다.

마운드에도 유망주가 즐비하다. 올해 신인 박명근과 유영찬이 든든한 필승조로 거듭났다.

시즌 초반 강렬한 인상을 심은 박명근은 올해 4승 3패 5세이브 9홀드 평균자책점 5.08을 기록했다. 올해 정규 시즌에 6승 3패 1세이브 12홀드 평균자책점 3.44의 성적을 거둔 유영찬은 KS 3경기에서 6이닝 1실점으로 활약하며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2022 한자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고우석과 정우영도 아직 나이가 만 25세, 24세에 불과하다. 탄탄한 팀을 자랑하는 LG는 올해 KS를 치르면서 경험도 쌓았다.

최근 몇년간 KS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선 팀은 존재하지 않았다. 2015~2016년 두산 베어스가 마지막이다.

왕조 건설을 꿈꾸는 LG는 내년 시즌 8년 만에 2년 연속 KS 우승을 노린다.

염 감독은 "올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우승하면 내년 시즌 멘탈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KS에 올라가면 더 강해진 LG가 돼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베테랑 선수들이 밑에 선수들을 키워내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팀이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팀이 조금씩 돼가고 있다. 김현수, 오지환, 박동원, 박해민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며 "신구조화가 잘 돼 있다. 선수들을 잘 키워내면 명문구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남승룡·최동원 등을 스포츠영웅 후보 선정

21일까지 국민지도 조사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오는 21일 오후 9시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에 국민지도 조사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은 스포츠를 통해 선수 및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국위를 선양하여 국민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선수 또는 스포츠 공헌자로, 한국 스포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사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스포츠영웅을 선정·헌액해 스포츠영웅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스포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추천위원, 체육단체, 출입기자의 후보자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인단, 추천기자단, 대한체육회 원로회의기구의 추천을 받아 △남승룡(육상) △김범석(야구) △이흥복(스포츠 공헌자) △최동원(야구) 등 4명을 최종후보자로 선정했다. 스포츠영웅은 선정위원회 및 평가기자단의 정성평가와 국민지도 조사 합산 점수를 고려해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며, 스포츠영웅 선정자는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의 전당에 헌액된다.

지도 조사는 21일 오후 9시까지 홈페이지(www.sports.or.kr/hero/main)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5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음료 기프트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북 체육 위상 국내 넘어 국외로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中 베이징 방문 동북아시아 국가 스포츠 교류 협의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사진 왼쪽)이 중국 베이징체육대학 관계자들과 동북아시아 체육 발전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베이징체육대학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스포츠 교류에 대한 논의 및 협의가 진행됐다.

베이징체육대학은 중국 국가체육총국에 소속된 체육종합대학으로, 동북아 최고의 대학으로 전해지고 있을 만큼 명실상부 체육 메카 학교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체육 강국과 주기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선진 체육시스템을 벤

치마킹하고 우호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전북체육회는 전북 체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베이징체육대학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펼칠 계획이다.

정강선 회장은 "체육의 위대함은 언어의 벽도

국경도 뛰어넘어 우정을 쌓게 해 주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몇 년간 주춤했었는데 전북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체육교류를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지난 2020년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필리핀 대학체육회, 사이판대학체육회 등과 상호 협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베트남 정부와 체육 교류를 논의하는 등 국제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뉴시스



변성환호, U-17 월드컵 프랑스에 0-1 패배 김명준(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남자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 프랑스와 경기 중 공을 다루고 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U-17 축구대표팀은 전반 2분 실점하며 0-1로 패배 2패를 기록, 16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뉴시스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 '월간 TSG' 11월호 발간

지난달 K리그 주요 경기데이터 등 되짚어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한 달간 K리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술과 전략을 분석한 월간 테크니컬 리포트 '월간 TSG' 2023년 11월호가 발간됐다고 16일 밝혔다.

'월간 TSG'는 연맹이 발간하는 K리그 전술 및 데이터 분석 콘텐츠로, 매월 발간되고 있다.

이번 '월간 TSG' 11월호에서는 지난 10월 K리그, 2 순위와 주요 경기데이터 등을 되짚어 보고 월간 베스트 팀, 베스트 플레이어, 베스트 매치를 선정해 심도있게 다뤘다.

베스트 팀은 10월에 열린 4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K리그2 선두 부산아이파크를 맹추격한 김천상무를 선정했다.

여기서는 김천의 두 대형을 오기는 유연한 전술적 운영과 강력한 압박 전술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베스트 플레이어는 K리그2 데뷔 첫 시즌부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전남드래곤즈 공격수 발디비아를 소개했다. 발디비아는 현재 13득점 14도움으로 K리그, 2 선수를 모두 통틀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올 시즌 전남의 총 득점(54골) 중 무려 절반에 기여한 수치이다.

특히 연맹이 지난해 9월 월간TSG를 창간한 뒤 K리그2 선수가 표지 및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된 것은 발디비아가 최초다.

베스트 매치는 지난 10월 21일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K리그1 34라운드 대구FC와 전북현대의 경기를 선정했다.

한편, '월간 TSG' 11월호는 웹 매거진(PDF) 형태로 K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며,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뉴시스

재한국 베트남인 축구대회

19일 익산 금마축구공원에서

30만 재한 베트남인의 최대 축제인 '제3회 VFAK동맹컵 축구대회'가 오는 19일 익산시 금마축구공원에서 열린다.

'제3회 VFAK동맹컵 축구대회'는 베트남인 최대 커뮤니티가 모여 함께하는 연합 축구대회로 전국 22개 도시에서 700여 명의 선수와 1,50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할 예정이다.

주한베트남대사관(대사 응우옌부동)이 주최하고 주한베트남 축구협회(회장 도안광비엣)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남성 22개 팀, 여성 4개 팀 총 26개팀 700여명의 선수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족을 포함해 1,5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시는 이 대회를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이영진 수석 코치를 초빙하는 등 재한 베트남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영화따라 클래식 산책

이운정 Pf. 박세훈 Bar. 이상욱 Gt.
이영인 Pf. 김경은 Sop. 이동준 Dr.

문화공간 이름 ART SPACE

2023. 11. 28(화) 7:30pm

티켓: 전석 무료 (단, 예약제)
예약: "영화따라 클래식 산책" 검색
문의: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름" ☎ 063. 223. 5323

주최·주관: 문화공간이름
후원: 문화재단

본 공연은 (사)전주베트남문화재단 2023년 민간문화사업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